

가족드라마 vs 범죄액션...한국영화 흥행 경쟁



영화 '기적' 스틸컷

주말을 포함해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장가에서는 최신 개봉작과 장기 흥행 중인 한국 영화들이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지난 15일 나란히 개봉한 가족 드라마 '기적'과 범죄 액션 '보이스'를 비롯해 올해 최고 흥행작인 '모가디슈'와 황정민 주연의 '인질'은 이번 연휴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볼 만한 영화로 꼽힌다.

앞서 개봉한 마블의 신작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과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의 첫 번째 첩보 영화 '공작조: 현애지상' 외에 공포 영화 팬들을 거느린 제임스 완 감독의 신작, 해외 애니메이션 등도 준비돼 있다.

◇'기적'·'모가디슈' vs '보이스'·'인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대목인 추석 연휴 극장 상자림은 예년보다 단축해졌지만, 가슴 뭉클한 감동 또는 시원한 쾌감을 주는 다른 색깔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산골 마을에 간이역을 세우는 것이 인생 목표인 소년 준경(박정민)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기적'은 순수함과 따뜻함을 전한다. 배우 박정민과 소녀시대 출신 임윤아가 보여주는 첫사랑의 풋풋함에 미소 짓다가도 숨겨져 있던 준경의 가슴 먹먹한 가족사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

'기적'이 한 가족과 사골 마을의 서사를 차분히 풀어낸다면,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통해 생생한 액션의 쾌감을 안겨준다. 전직 경찰 서준(변요한)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인 중국 콜센터에 잠입하는 이야기로 변요한의 맨몸 액션과 더불어 보이스피싱의 치밀한 범죄 수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난 7월 개봉해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는 남북 관계를 배경으로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사람들의 탈출 실화를 그린다. 급박한 상황을 담은 영화는 최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실감을 더한다.

실화 모티브 뭉클한 가족에 '기적' 수화기 뒤편 거대 범죄조직 '보이스' 마블 신작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장이머우 감독 첫 첩보영화 '공작조' 쟁구·포켓몬스터 등 애니메이션도



영화 '보이스' 스틸컷.

지난달 개봉한 '인질'은 배우 황정민이 납치된 톱스타 황정민을 연기한 작품이다. 황정민은 손발이 묶인 채 순발력을 발휘해 납치범들의 손에서 빠져나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해외영화, 히어로부터 첩보·공포·애니까지 다양한 장르의 해외영화들도 관객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16일 개봉한 중국 첩보물 '공작조: 현애지상'은 냉전이 감도는 1931년 일제에 맞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하얼빈에 파견된 특수요원 4명이 펼치는 치밀한 두뇌 싸움을 그린다. '붉은 수수밭', '영웅: 천하의 시작' 등을 연출한 장이머우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하얀 눈이 쏟아지는 설원에서 배신자의 밀고로 위기를 마주한 인물들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함을 절절하게 드러낸다. 작품 자체는 애국주의 성격이 강하지만, 일제 침탈로 독립운동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

다. 마블이 처음으로 동양 히어로로 솔로 영화로 만든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이번 연휴 유일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관심을 받고 있다. 상처 역의 시무 류를 비롯해 아콰피나, 랑자오웨이(양조위) 등 눈에 익은 아시안 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 공포 영화 '컨저링', '쏘우' 등을 연출하며 '호러 제왕'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완 감독의 신작 '말리그먼트'도 스크린에 걸린다. 주인공이 어릴 적 상상의 친구가 벌이는 연쇄 살인에 휘말리는 이야기로 긴장감과 잔혹함이 주는 공포를 극대화한다.

어른들에게도 익숙한 쟁구와 포켓몬스터도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격돌 낙서왕국과 열추 네 명의 용사들'과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는 각각 낙서 왕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용사로 거듭난 쟁구와 이제껏 본 적 없었던 포켓몬들을 보여준다. /연휴뉴스



영화 '모가디슈' 스틸컷.



영화 '공작조:현애지상' 스틸컷.



영화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격돌 낙서왕국과 열추 네 명의 용사들' 스틸컷.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스틸컷.

한가위 대명절 예술영화도 풍성

광주극장, '좋은 사람'·'토베 안손'·'아임 유어 맨' 등 417분 대작 무성영화 '바퀴' 디지털 복원판으로 상영

예술영화 전용관 광주극장에서는 추석 연휴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2관왕을 차지한 웰메이드 서스펜스 드라마 '좋은 사람', 우리가 몰랐던 '무민' 작가의 진짜 이야기 '토베 안손',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최고 연기상에 빛나는 '아임 유어 맨' 등을 상영한다.

오는 25일에는 프랑스 무성영화 최고봉으로 417분의 대작 '바퀴'를 국내 최초 디지털 복원판으로 만날 수 있다.

'좋은 사람'은 교실 도난 사건과 딸의 교통사고, 의심받고 있는 한 명의 학생 '세익',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교사 '경석'이 의심과 믿음 속에 갇혀 딜레마에 빠지고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석' 역을 맡은 김태훈은 선악이 공존하는 얼굴, 밑도 높은 감정연기를 선보이고 조연 배우들 또한 깊이 있는 연기력을 통해 웰메이드 서스펜스 장르의 매력을 한층 높인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CGV아트하우스상 2관왕을 수상했다.

'어시스턴트'는 꿈을 좇아 영화사에 취직했지만 직장 내 부당함을 깨닫고 일상이 흔들리는 '제인'의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로 키터 그린 감독은 직장 경험이 있는 100명이 넘는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와 경험을 통해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영화는 사회 초년생 제인(줄리아 가니)의 오피스 일상을 잔잔하게 관찰하면서 고단한 현실을 섬세하게 표현해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36회 선댄스 영화제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 5개 부문 수상, 2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아임 유어 맨'은 사랑에 무관심한 '알마'가 그녀의 완벽한 파트너로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 '톰'과의 3주간의 동거라는 특별한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알고리즘 로맨스다.



'아임 유어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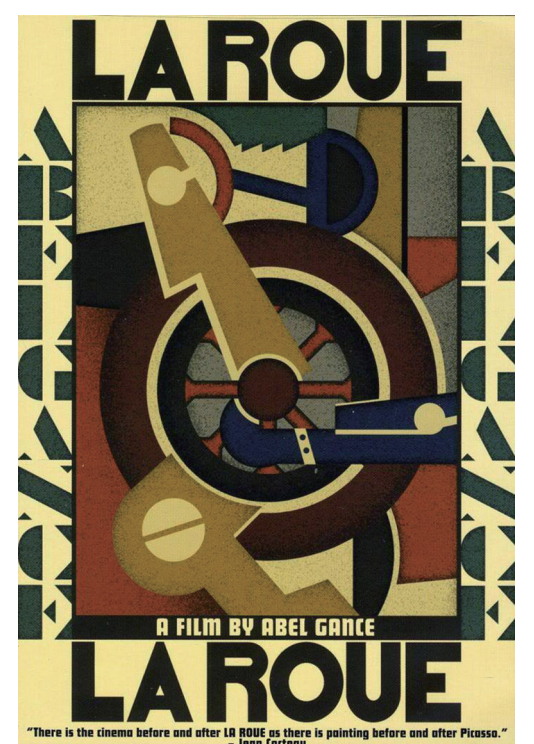
AI 시대에 발맞춰 점차 다변화되는 사랑의 형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리아 슈타더 감독의 독특하고 기발한 상상력과 독일을 대표하는 배우 마렌 에거트가 내밀하고 섬세한 연기로 복잡다단한 '알마'를 현실감 있게 표현해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최고 연기상을 수상했다.

'토베 안손'은 글로벌 캐릭터 캐릭터 '무민'을 만든 작가 토베 안손의 열정적인 일상과 사랑



'토베 안손'

을 그린 영화로 유명한 조각가인 아버지의 만류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예술을 펼치던 토베가 연극 연출가 비비카와 강렬한 사랑에 빠진 후 겪게 되는 일을 담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토베를 표현하기 위해 생동감과 생기를 갖고 있는 배우 알마 포위스터를 캐스팅했고, 이와 함께 토베 안손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업실과 독특한 화풍이 깃든 그림 등이 완벽하게 구현된다.



'바퀴'

한편 '윈데이 시네마 시즌2: 반드시 끝까지 볼 것' 두번째 상영작으로 철도 노동자들과 기계화된 현대생활을 생생한 리듬으로 구현한 '바퀴' (1923년)가 25일 오후 1시부터 상영된다.

러닝타임 417분의 대작으로 아벨 갠스 감독이 3년에 걸쳐 누구도 보지 못한 스펙터클에 도전했고 그 스스로 "이미지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평한 작품이다. 국내 최초로 417분 디지털복원판으로 만날 수 있다. /이연수 기자